

News

인수위 부동산정책 연기에...대출규제 완화 안갯속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정책 발표를 예상했던 이번 주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여전히 안갯속... 특히 LTV, DSR 등 세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은행과 개인차주들은 혼란 가중... 은행업권 관계자 "회사 경영 방향 수립에 어려움...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공격적으로 영업해야 하는지 고민"

김기홍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의지"

뉴스투데이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12일부터 15일까지 자사주 2만주 취득... 사측 "주주가치 제고 등 책임경영 의지의 표현"
지난 2019년 5월과 11월, 2020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 이번 추가 매입을 통해 총 10만 500주의 자사주 취득

은행 '규제 대응' CD 급증...대출금리 인상 '부채질'

데일리안

4개 주요 은행의 작년 말 CD 부채 잔액은 총 30조 4,464억원으로 20년 말보다 186.7% 증가... 신한은행의 CD 부채가 16조 3,996억원으로 동기간대비 176.0% 증가 예대율과 유동성 규제 정상화에 대응책으로 CD 매력 커져... 정기예금과 연계된 특성 상 보유량 중 일정 부분을 예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하나은행, 주담대 최장 만기 35→40년 연장

이데일리

하나은행, 21일 대출 취급분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려...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줄어들어 동일 DSR 적용시 더 많은 한도 가능 사측 "차주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기간 변경"...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심으로 적용

우량 보험사들까지...재무건전성 '초비상'

한국경제

생명 및 손해보험업계,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 하락에 따른 정기시정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건의...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금감원 권고치인 150%이상, 보험업법 기준인 100% 선마저 밑돈 보험사가 여럿 나와...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에 나서...

올해 찍어낸 채권만 1.4조...보험사들 허리 툰다

대한금융신문

보험사들, 올해 원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한 보험사 7곳(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흥국화재)은 1조 3,650억원 확정 지난달에는 코리안리도 2,000~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 금액은 더 확대될 예정... 다만 하이브리드 증권 비중 높아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 가능

1분기 DLS 미상환 발행잔액 약 28조원...전분기비 1.8% ↑

EBN

3월말 기준 DLS 미상환 발행잔액이 27조 9,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전분기 대비 1.8% 증가... 발행형태별로 공모 35.6%, 사모 64.4% 삼성증권의 DLS 발행금액이 4,060억원으로 가장 커... 이어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교보증권 순

키움증권, '증권형 토큰'에 꽂혔다...신사업 낙점

핀포인트뉴스

키움증권,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업체들과 연이은 협력관계 중... 증권형 토큰 관련 다양한 서비스 발굴해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 19일에는 세종텔레콤과 MOU...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 내 지배력 강화 추진 계획... 향후 신규 사업 확대할 것으로 포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